

♥♥소 식 란♥♥

선교회 정규 활동 일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모든 양로원 예배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 ◇월: Bristol Manor Health Care Center..... 정준임 집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 Buckingham at Norwood..... 서연희 권사 인도, 박가희 권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 Oradell Health Care Center..... 김은수 집사 인도, Paul Dunn(말씀), 박승이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 김진호 장로(클라리넷), 정병찬 집사(드럼)
- Sunrise of Old Tappan..... 김학영 권사 인도, 김주연 집사 반주 송재현 목사(클라리넷), 정은영 사모(플룻)
- ◇화: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 View... 이에리사 사모 인도, 김현정 집사 반주
- Atrium Senior Living of Park Ridge.... Maria Kim 인도, 박가희 권사 반주
- Sunrise of Cresskill..... 조미경 집사 인도, 강 희 집사, 이문웅 장로(색소폰)
-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니콜 오 전도사 인도, 한정아 집사 반주, 김여진 선생(바이올린)
- 한소망 요양원..... 정종은 집사 인도, 안혜신 집사 반주
- ◇수: Buckingham at Norwood Care..... Jeannie Hwang 선생 인도, 한아정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클라리넷), 정병찬 집사(드럼)
- County Manor Rehabilitation..... 김금화 집사 인도, 이연옥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 Sunrise of Paramus..... 정준임 집사 인도, 에스터 양 전도사(말씀), 최성아 집사 반주
- ◇목: Armenian Nursing & Rehabilitation..... Maria Kim 선생 인도, 문주미 집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 김진옥 집사 인도, 서울옥 집사 반주
- Bergen County Health Care Center.... 김금화 집사 인도, 이수지 집사, 최수현 집사 반주
- Buckingham at Norwood Care and.... 박경옥 권사 인도, 문행희 집사 반주
- Rehabilitation Center, 은혜 양로원..... 정준임 집사 인도, 이해림 집사 반주
- Oakland Rehabilitation & Healthcare Center..... Woodcrest Health Care Center, 이승진 전도사 인도, 윤주영 집사 반주, New Milford 윤선구 장로, 김진호 장로(클라리넷)
- ◇금: Atrium Post Acute Care of Park Ridge.... 박경옥 권사, 신용자 권사 인도, 박수연 집사 반주
- CareOne at The Cupola, Paramus..... 이미혜 집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Paul Dunn/설국환 전도사(말씀)
- CareOne at Valley, Westwood..... Brenda 조 집사 인도, 최수현 집사/Soo Park 선생 반주
- 버겐병원 내 정신병동..... 서연희, 양승화 권사 / 최영준 집사 인도, 한정아 집사 반주
- 한국 요양원 5동..... 박성길 장로 인도, 신지연 자매 반주
- ◇일: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Metro Church Member

양상불 단원 동정

1. Region orchestra :
Hee Soo Bok, Justin Lee, Julia Jeong, Jiin Jung, Enoch Jo, Danyoung Kim, Lauren Chun, Sarah Hwang, Jodie Suh, Daniel Son, Karen Jo, Peter Park, Joseph Lee, Noel Cho
2. All State Choir: Yuna Chung(Treble), Jennifer Jin(Mixed)
3. All Eastern Orchestra: Lauren Chun, Sarah Hwang
4. Bergen County Choir: Yuna Chung
5. All Eastern Mixed Choir: Jennifer Jin
6. NYSSMA All State Music Festival : 함지훈
7. Camerata Artist International Competition:
Young Ye Roh (2nd prize), Ji Hoon Ham (2nd)
8. East Coast International Competition:
Ji Hoon Ham (ensemble 1st), Jungwook Choi (viola 2nd), Irene Yi(cello 1st)
9. New York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Jodie Suh (Viola 2nd), Irene (cello 1st , cello ensemble 2nd), Noel Cho (cello 2nd)
10. Crescendo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Julia Jeong(violin 1st), Noel Cho(cello 1st)
11. VIVO Youth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Noel Cho(cello 2nd), Ji Hoon Ham (ensemble 1st)
12. National Young Arts Foundation Honorable Mention:
Andrew Kim
13. Juilliard Concerto Competition: Andrew Kim (violin 2nd)

◇◇ 양상불 특별활동 행사 일정 ◇◇

- 2월 11일(토): New Milford Woodcrest, 2:00 pm
- 2월 18일(토): Wayne View, 2:00 pm
- 2월 26일(일): Paramus Sunrise, 11:00 am
- 3월 12일(일): Cresskill Sunrise, 11:00 am
- 3월 18일(토): Rochelle Park, 2:00 pm
- 3월 25일(토): Tenafly County Manor, 2:00 pm
- 4월 2일(일): Atrium Senior Living of Park Ridge, 11:00 am
- 4월 8일(토): Englewood Lillian Booth, 2:00 pm
- 4월 18일(화): 선한 이웃 양상불 신입단원 선발 오디션,
아콜라 연합감리교회, 6:00 pm
- 4월 22일(토): Paramus Cupola, 2:30 pm

◇◇ 선교회 특별활동 일정 ◇◇

- 6월 17일(토):
선한이웃 선교회 창립 18주년 기념 자선음악회, 7:30pm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Ridgewood, NJ)

“그러므로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1)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과연 2016년을 어떻게 마무리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다 발전하는 2017년을 계획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만족스러웠던 일들과 부족했던 일들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저 자신의 부족함에 두려워하며 살고 있던 저에게 지난 2016년도는 진실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돌아보면 실수도 찾았고 부끄러웠던 일들도 많았지만,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저를 불들고 있다는 확신에 감사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6)

성경은 우리 선한 이웃 선교회 봉사자들 모두에게 마치 2017년의 사명을 주는 듯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 신앙 또는 이기적 신앙의 삶 속에서 매일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멈추지 않고 이웃을 섬길 때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선한 이웃 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경제적 안정, 관계 회복, 신분 해결, 건강 문제, 신앙생활, 자녀 문제 해결 등 기도 제목들이 많으시지요? 저 또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도 소망하며 고통 안에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체험을 양로원 봉사를 통해 우리는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양로원에서 찬양 사역을 할 때 그곳에 계시는 많은 환자분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외롭고 메마른 생활 안에서 찬양을 통해 성령의 단비를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하는 환자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기쁨은 물결해집니다.

작년 6월부터 찬양 사역 봉사를 시작한 한소망 요양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North Bergen에 위치한 한인 양로원입니다. 요양원에 살고 계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평생 열심히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오신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찬양 시간에 환자분들 중 많은 분이 찬송기를 4절까지 다 외워서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봉사자들은 감탄하게 됩니다. 짧은 성경 구절 하나도 외우기 힘들어하는 저희에게는 믿음의 선배이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도 느끼게 됩니다.

환자분들 중 매주 찬양 시간에 빠짐없이 참여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찬송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독문까지 다 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봉사 중 늘 참석하시던 사모님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디렉터 선생님께 안부를 여쭈어 보았더니 사모님께서 심한 허리 통증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한참 찬양 사역으로 봉사자들과 환자들이 함께 신나게 찬송가를 부르고 있을 때 저는 사모님의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맞추어 함께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소절도 틀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앓아 있지도 못할 만큼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사모님은 주님께 감사하여 두 팔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평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선한 이웃 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조건없이 베풀어 주신 고귀하고 값진 선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봉사자 모두가 의지하여 함께 선한 이웃의 사명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봉사를 통해 함께 매일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힘이나라.’ (에베소서 2:8-9)

정 준임
선한 이웃 선교회 회장

A Changed Life

"The best and most beautiful things in the world cannot be seen or even touched - they must be felt with the heart." by Helen Keller

Volunteering has changed my life forever. I have often heard people talk about the benefits of volunteering and how it gives one an opportunity to change other lives, including your own. But I didn't fully understand the impact of that claim until I started to volunteer myself at Good Neighbor Ministry (GNM). At first, I truly went for some adult companionship and to build new friendships since I was fairly new to my town. Immediately, I felt a sense of belonging to all the sisters and brothers who serve so faithfully at the Good Neighbor Ministry. The feeling of being connected through Holy Spirit brought comfort and peace that only God the Father could give. Like that song.....

"My Peace"

My peace I give unto you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understand
Peace to know
Peace to live,
My peace I give unto you.

The shalom and comfort that only can be fulfilled by our mighty God is a feeling that cannot be replaced by the riches of this world. It is the sense of belonging to a higher calling from our Abba, Father that inspired me to fight the good fight. Brothers and sisters walking in one spirit and seeking to reflect God's heart is the fragrance that floats among the Good Neighbor Ministry. It is a ministry that allows us to come as we are and worship in truth and in spirit. A ministry that gives each and every one of us an opportunity to walk deeper in faith, hope and love.

"For where two or three gather together as my followers, I am there among them" Matt 18:20

Brenda Cho,
CareOne at Valley, Westwood

삼 월

그가 말이 많아졌다
아직은 찬 바람
가지를 뒤흔들어도
기도의 문이 열린 것일까
느닷없이 비가 쓸어붓던 밤
어디를 다녀왔는지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그가 꽃을 잉태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지 않지만
사람들은 안다
아버지의 이름을 은총이
어디로 부터 내려온 것인지를

김 은자 권사/시인



♥♥소식란♥♥

선교회 소식

* 2017-2018학년도 선한 이웃 양상을 신입단원 선발 오디션이 4월 18일 화요일 오후 6시에 아콜라 연합감리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8학년 이상 현악기 혹은 풀롯 연주자입니다. 문의:이수진 (201-658-4537/sjlee0124@gmail.com)

*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 18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가 6월 17일(토) 7:30pm에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Ridgewood, NJ)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Winter Break 중에 각 양로원을 찾아 특별 연주로 노인분들에게 기쁨을 선물한 양상을 단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2월 20일 ~ 2월 24일)

* YouTube Channel을 통해 선교회의 자료와 창립 기념 자선 음악회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YouTube에서 Good Neighbor Ministry를 Type하시면 선교회 Channel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Subscribe하셔서 앞으로도 새로 올라오는 선교회 관련 동영상들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 성탄을 맞이하여 각 양로원 환자분들께 선물을 준비해 주신 선한 이웃 선교회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12/15일 Oakland Rehabilitation & Healthcare Center에서 특별 찬양을 해주신 성악가 김기홍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12/22일 Sunrise of Paramus 양로원에서 멋진 찬양의 시간을 선물해 주신 성악가 조형식님, 학생 조세진군과 피아니스트 김미라님께 감사드립니다.

* 1/9, 2/20 일 Buckingham at Norwood (1층) 양로원에서 은혜로운 Clarinet 연주를 선사해 주신 트로이메라이 클라리넷 스튜디오 학생들과 대표 최승호 집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 1/31일 한소망 요양원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해 주신 그레이스 강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1월 6일 신년 예배에 도움을 주신 분들>
경배와 찬양-박지우 목사/반주-한자경 집사/말씀-최세나 목사/축도-송재현 목사/특별 연주-Violin/양상을 졸업생, 유경민/정선분, Piano/한자경 집사/음식 제공-선한 이웃 선교회/과일 제공-서연희 권사, 정구임 권사/장소 제공-베다니 교회

선교회원 동정

◇장례: *오랫동안 선한 이웃 선교회에서 보조해왔고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아이티 선교사 이강희 목사님께서 지난 2월 7일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유족들께 부활의 위로를 드립니다.

*권덕경 권사 (장수영 권사 모친), 지난 2월 10일 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수영 권사님과 유족들께 부활의 위로를 드립니다.

*곽규배 집사(곽순자 권사 부친), 지난 2월 21일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곽순자 권사님과 유족들께 부활의 위로를 드립니다.

◇선교: 박성길 선교사 (2/12~3/3), 카자스탄, 중국 순회선교 성령 세미나 집회

◇김은자 권사: 세번째 시집 '비대칭으로 말하기'를 출간했습니다. 출판 기념회가 3월 25일 6:00PM, KCC (Tenafly)에서 열리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축하: 정찬미 자매, 지영찬 형제 가정의 딸, 온성양이 2월 12일에 출생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선분 선생: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초정 연주회가 지난 2월 10일에 열렸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2016년 12월 ~ 2017년 1월, 2월)

정혜령, 정구임, 임미영, 서연희, 김윤수/김애자, Joy Church, 그레이스 연합 감리교회, 베다니 교회, 베겐병원 내 정신병동

수입: \$7470.00 지출: \$6521.35

기도란

+ 양로원 사역을 위한 기도

- ◆ 노인들의 영육간의 강건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 ◆ 봉사하는 분들과 후원하는 분들의 건강과 가정, 사업을 위하여
- ◆ 새로 시작한 한소망 양로원 사역을 위하여
- ◆ 창립 18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를 위한 기도
- ◆ 선한 이웃 양상을 학생들을 위하여

+ 예배 인도자들을 위하여

- 권사 : 김학영, 박경옥, 서연희, 양승화, 신용자
장로 : 박성길
집사 : 김진옥, 정준임, Brenda 조, 정종은, 김금화, 조미경, 이미혜, 김은수, 최영준, Maria Kim, Jeannie Hwang
전도사 : 니콜오, 이승진, 이에리사 사모, 에스더 양, 설국환
Metro Church Member

+ 선교사를 위하여

- 박성길 장로(순회선교사),
이문웅 권사, 이명옥 권사(과테말라),
박문희 집사(해외선교)

+ 건강을 위한 기도

- 강신억 집사(강인숙 권사 부군), 김진옥 집사(모친), Jeannie Hwang(부친 & 따님), 어혜숙 권사(건강 회복)
정은영 사모, 전원옥 사모(수술 회복), Sean Lee(건강 회복)
Jane(암 투병/Nicole Oh 전도사님 친구)
Benny de Marco(건강), Nikki Papadopoulos(수술 회복)-Oradell

※양로원 사역 봉사에 관심있는 분들 연락 바랍니다.

*선한이웃 선교회 소식지 : 주님 안에서의 수고와 마음을 담은 여러 사연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원고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A Letter to the Next Generations of GNE

It's unbelievable to think that six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I first joined GNE in the 7th grade. I can still remember walking into the small chapel of Bethany Church in Fort Lee with my brother, filling out the registration form, and playing in our first-ever rehearsal after our auditions. So much has happened between now and then that it's hard to remember every moment, but I don't want to ramble on about my personal experiences, especially since together we share so many. I just want to emphasize one thing to the next generations of students who won't know who I am...

Please never forget the original purpose and intent of the ensemble: to serve our local communities through the word of God and music. Nearly twenty years ago, 김명신 권사님 created the Good Neighbor Ensemble with less than ten people, including herself, in order to accompany the services that were provided at nursing homes, and today we still faithfully continue the tradition with nearly fifty kids and counting. It may not seem like we're doing much, but talk to any of the elders and residents at the nursing homes and listen to what they have to say. Many of them are genuinely happy for our performances, and you'll leave with humility and a better understanding of just how impactful our work is. Add all that our parents and the Good Neighbor Ministry have done for us, and it becomes imperative that it's our responsibility to do our absolute best at every practice, every concert, every time



we pick up our instruments. So long as that central idea is retained, then GNE will always prosper. This is the highest respect we can give to 김명신 권사님 and her vision of service, and soon it will be your responsibility to carry on.

I was only a small part of the long history behind GNE, but I am humbled and will be forever grateful for having been part of such a dedicated community. Since it's my last year, I want to formally express my gratitude by saying simply saying thank you to 김명신 권사님, 정준임 집사님, 이수진 단장님, and 김동민 지휘자님; to our hardworking and supportive parents; to all the other students I've played with for the wonderful memories; and to the next generations, for your unselfish commitment to a cause greater than ourselves. Without everyone working together, GNE would not have come this far, and I have the utmost confidence that GNE will go even further.

Chris Jin
Law and Justice '17
Bergen County Technical High School

Myung Shin Kim Memorial Scholarship Awards

선한이웃선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교회, 단체,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학 재단에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 Payable to : Good Neighbor Ministry
- Memo : Scholarship Awards
- Mail to : Good Neighbor Ministry
P. O. Box. 110
Closter, NJ 07624

<후원해 주신 분들>

Joon Chung, Soon & Ester Chung, Paul Kang, Steven Kang, Ok Ja Kim, Hannah Lee, Robert W Lien, Heejoo Yoon, 임미영, Kenny Yoon, 송희수, 추가: Jaebum Kim/Debora H Kim,
정구임 권사, 수입: \$2500.00

총수입: \$12,950.00

총지출: \$4,500.00(장학금 수여)

Amazing Grace! Amazing Growth!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7살 딸아이와 8살 아들아이가 한소망 요양원 어르신들 앞에서 목소리가 터지라 친양을 한다. “짝 짹 짹!” 힘도 없으신 어르신들이 환호까지 하시며 박수를 아끼지 않으셨다. 80세, 90세를 훌쩍 넘기신 어르신들 앞에서 이제 7, 8년 산 아이들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를 친양하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이 아이러니한 아름다움이 감사하기도 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인생속에(그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엄마인 나만이 기억하는 “이제껏 그들이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의 장면을 한 컷 정도 이 지면을 통해 나누기를 원한다.

터울 없는 자녀들을 가진 엄마들은 아마도 공감할 것이다. 큰 아이 기저귀 채우고 나면 작은 아이 기저귀 같아야 하고를 반복하는 엄마의 인생을… 큰 아이 이안이가 기저귀를 늦게 폐었는데 작은 아이 이레도 영 기저귀 뺄 생각을 안 해서 하루는 아예 기저귀를 채우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레는 그냥 무방비상태로 바닥에 쉬야(?)를 했다. 정신없이 다른 일을 하고 있던 나는 ‘저렇게 작은 아이의 몸에서 저렇게 많은 물이 나오다니…’ 하는 생각을 하며 걸레를 가지러 간 사이에, 한참 공놀이에 열중하고 있던 이안이의 공이 떼굴떼굴 굴러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은 바로 이레가 쉬를 한 정확한 지점을 통과하여 온 거실을 떼굴떼굴 굴러다녔다. (나는 이 공을 피피볼이라고 불렀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당황이 되기도 했고, 이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염된 공간 속에서의 현실 때문에 잠시 화가 나기도 했지만, 나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똑바로 보고 더 많은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게 되었다.

아이들은 전혀 죄책감이 없다. 쌌는 놈 따로 있고, 쌌 거 퍼뜨리는 놈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은 또 따로 있다는 이 엄청난 불평등의 현실이 엄마인 내게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나는 원래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간들이 지나면 엄마와 당당히 화장실을 나눠쓸 아이들의 미래가 기다려지는 이상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걸레질을 하면서 두 아이를 차례로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싼 놈이 나쁜가? 쌌 것을 퍼뜨린 놈이 나쁜가?”, 좀 더 생각을 비약해 보았다. “죄를 시작한 놈이 나쁜가? 죄를 퍼뜨린 놈이 나쁜가?” 내 머리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내 마음과 내 손은 더러운 오물들과 공 때문에 아수라장이 된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환경이 더 오염되기 전에 엄마로서 빨리 치워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 아이들을 오염된 거실에서 피신(?)시키고 모든 청소를 끝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행복해졌다.

별거 아닌 일상의 소소한 에피소드이지만, 나는 한숨 돌리고 난 후 갑자기 울컥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일까? 죄를 시작한 첫 번째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죄를 퍼뜨린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리라. 창조주가 지으신 세상에서 피조물들이 주인이라 착각하며, 나쁜 짓을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시간을 창조하셨음에도 가장 불공평한 사랑을 주시고 “사랑한다.” 표현해주시며, 하나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엄마가 되어서 걸레질하며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세!

나는 아이들이 양로사역을 가기 전날 밤, 5년 전에 있었던 “피피볼” 사건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피피볼 사건을 들으며 깔깔대고 웃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피피볼 때문에 청소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눠주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별 기대 없이 한번 물어보았다. “오줌을 짠 이레와 오줌을 퍼뜨린 이안이 중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 큰 아이 이안이가 말한다. “엄마,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공놀이를 Careless하게 했어요.” 그러자 새침데기 이레가 고백한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쉬해서 엄마가 힘들었어요. Really Sorry.” 이런 분위기를 예상한 것은 아니었는데 아이들은 자신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피피볼 사건을 5년이 지난 지금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한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고작 2살, 3살 아이들이 저지른 귀여운 실수를 너무 확대시킨 것은 아닌가 해서… 그러나 때가 지나면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쌓아온 사랑과 신뢰 덕분에 아이들이 자신의 실수까지도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게 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리 안에 꼭 회복되어져야 하고, 청소해야 할 회개와 고백이 나오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선한이웃선교회의 양로사역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지체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에게 주신 “Amazing Grace”를 날마다 친양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Amazing Growth”를 함께 보게 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책장을 넘겨드린 그 할머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오랜 투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천국의 평안을 얻는 어르신들의 친양이 모든 양로 사역자들마다 이어지기를… 이제껏 우리가 산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자…

최세나 목사
뉴저지 장로 교회

Photo Gallery / GNM



Photo Gallery / GNE

